교합기 대신, 임시레진치아를 활용한 전악회복 증례

예은치과
우상두

임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대구치 우식증으로 충전하고 심하면 근관치료 후 단일 금관을 장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도한 이갈이(Bruxism)나 선천적 에나멜 형성불량 등과 같은 이유로 구치부 교합면이 손상되면, 전치부에도 파절이나 치경부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28개 치아 모두 손상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럽다. 모든 치아에 인공치관을 장착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교합을 완성하고 편하게 기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간 과정에 다소간 불편하여도 저작, 발음, 심미의 기능을 유지시켜야 하며, 게다가 경제적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수복치료에도 감소된 고경으로 말미암아 탈락으로 고심하던 끝에 수직 고경을 높이고 전치부의 공간을 확보하여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교합기의 복잡한 과정 대신 임시 레진 크라운을 활용하여 기능과 심미를 회복한 44세 남성의 전악회복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하악 소구치와 대구치 총 16개와 상악의 6전치 그리고 하악의 좌우 견치 총 24개의 치아를 지속적인 치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일 치관으로 제작하였고, 하악의 4 전치는 광중합 레진으로 수복하였다.

가장 어려운 점은 수직 고경을 높이는 것이었다. 우측 구치에 바이트 블록을 놓고 좌측 구치의 교합면에 글래스아이오노머를 덮어서 중심위 교합을 잡고, 그 고경으로 우측 상악 4개의 구치를 지대치 형성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일주일 간 증가된 고경의 불편과 관절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우측 하악 4개의 구치를 지대치 형성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다시 일 주일간 사용하면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인상을 채득하고 강한 교합력을 고려하여 대구치는 골드 크라운으로, 소구치는 심미성을 고려하여 PFM 단일관으로 보철을 제작 장착하였다.

수직으로 높여진 고경에 맞추어 좌측의 치아들도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단일관으로 보철을 제작 장착하였다. 이렇게 해서 16개의 상하 좌우 소구치 대구치를 제작하였고, 전치부에서 얻어진 공간에 맞추어 상악 6전치를 지대치 형성하고 임시치아를 장착하여 불편함 여부와 안정성을 확인하고, 인상을 채득하여 PFM 단일관으로 보철을 제작 장착하였다.
하악의 좌우 견치를 지대치 형성하여 임시치아를 장착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일주일 후 인상을 채득하여 PFM 단일관 보철을 제작 장착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악 4 전치를 광중합 레진으로 빌드업하여 완성하였다.

(토론)
전체 치아를 단일관으로 제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수직 고경을 높이는 것은 악관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철학에서는 fully adjustable articulator를 사용한 전악회복술을 제시하지만, 이 교합기는 개원의로서는 고난이도로 인하여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임시 레진 치아로 수직 고경을 높여 제작하고, 적합성과 교합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 높여진 고경에 맞추어 보철물을 제작함으로서 편이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다.

(결론)
본 증례는 환자와의 심도있는 의논과 계획 수립 후, 임시 레진치아를 제작하여 사용하면서 증가된 고경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 고경에 맞추어 단일관을 제작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전악 회복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